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17장 그리스도와 구약성경

『산상설교』 상권 제17장, 인쇄 227~237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17~18

> ❓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오셨다는데, 그럼 구약의 율법은 이제 끝난 거야,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 거야?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5:17이 산상설교의 새 대목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의의 삶'으로 넘어간다. 주님은 세부 가르침에 앞서 두 원칙을 먼저 세우신다. 하나는 자신의 가르침이 구약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17~18절)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것(19~20절)이다. 이 설교는 첫째 원칙만 다룬다. 그는 이 원칙으로 두 가지 상반된 오해를 함께 바로잡는다. 하나는 '예수는 율법 선생일 뿐'이라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했다'는 오해다. 이를 위해 '율법', '선지자', '완전하게 하다'라는 세 낱말을 먼저 정의한다.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의 법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그 법을 남김없이 순종해 이루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

📜 절별 정리

📜 1. 새 대목의 시작: 성품에서 '의의 삶'으로, 원칙부터

로이드 존스는 5:17이 앞 구절에 이어지면서도 산상설교의 새 대목을 연다고 본다.

돌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내는가? 답은 한마디로 '의의 삶'이다. 산상설교의 나머지, 곧 7:14까지는 이 의의 삶을 여러 방식으로 보여 주는 실례이고, 5:17~20은 그 서론이다.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세부보다 일반 원칙을 먼저 세우신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잘못되는 사람은 늘 원칙이 불확실한 사람이다. 그는 이것이 전문화 시대의 병이라고 진단한다. 전문가는 세부에 몰두하다 원칙을 놓친다. 오늘의 혼란도 대부분 기본 원칙을 잊은 데서 온다. 모두가 경건하게 산다면 회담이나 기관을 자꾸 늘릴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1. 5:17부터 주제가 성품에서 의의 삶으로 바뀐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의'다
3. 5:17~20은 7:14까지 이어지는 가르침의 서론이다
4. 주님은 세부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신다
5. 실제의 실패는 원칙의 불확실에서 나온다

> **마태복음 5:16**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바로 앞 문맥
>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마태복음 5:17~20**
> 의의 삶 전체를 여는 서론이자 원칙
>
>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의 삶을 다루는 가르침이 이어지는 범위의 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실제에서 잘못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원칙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가지는 사람들”

📜 2. 두 명제, 그리고 '비판하는 가르침'

주님은 이 단락에서 절대적인 명제 두 개를 세우신다. 첫째, 17~18절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며 모순이 없다. 둘째, 19~20절에서 주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로이드 존스는 이 두 원칙을 잡지 못하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주님께 품은 적의, 주님이 겪은 괴로움과 오해가 모두 여기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주님이 자기 교리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교리를 비판하셨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시에는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도 지적·도덕적 무기력이 퍼져 있었다. “긍정적인 가르침만 하자”, “다른 견해를 비판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컸다. 교회연합 논의에서도 공동의 위험 앞에서는 교리를 따지지 말고 친절하게 뭉치자는 논리가 나왔다. 로이드 존스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답한다.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정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고 해서 그 조직의 부패와 위험한 오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첫째 명제: 주님의 가르침은 구약과 일치한다
2. 둘째 명제: 바리새인·서기관의 가르침과 충돌한다
3. 두 원칙을 알아야 복음서의 갈등이 풀린다
4. 주님은 틀린 가르침을 드러내 비판하셨다
5. 연합을 이유로 오류를 덮을 수 없다

마태복음 5:17~18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9~20

둘째 명제: 서기관·바리새인의 의와의 충돌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3. 왜 미리 말씀하셨나: 예수를 둘러싼 혼란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왜 이런 서론을 두셨는지 묻는다. 답은 분명하다.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은 큰 수수께끼였다. 그분은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그들의 훈련을 받지도 않았다.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정해진 길을 거치지 않고 선생이 되어 권위 있게 가르쳤다. 게다가 백성이 따르던 출중한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일부러 탄핵했다. 율법 해석에 시간을 다 쓰지도 않았다. 대신 탕자 같은 비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다. 더 고약하게 보인 것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었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규칙을 지키기는커녕 일부러 깨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가? 성경을 없애러 왔는가? 하나님께 가는 새 길을 가르치는가?” 주님은 이를 아시고 비판을 앞질러 다루셨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시키신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이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인다. 지금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1. 주님은 정규 경로 밖에서 온 선생이었다

4. 그래서 '성경을 버리러 왔나'라는 의심을 받았다

5. 주님은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미리 대비시키셨다

누가복음 15:11~32

탕자 비유: 은혜를 전한 '이상한' 가르침의 예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

마태복음 9:10~11

세리·죄인과 함께 먹어 비난받은 장면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5:17

“생각하지 말라”: 예상되는 오해를 먼저 막으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 4. 정반대 두 오해: '율법 선생 예수'와 '율법 폐지'

로이드 존스는 이 문제에 두 가지 난제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 학파는 예수가 한 일이

율법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칭의)이나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대한 가르침(성화) 같은 교리는 바울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창시자는 바울이고, 예수의 단순한 종교가 바울 때문에 전혀 다른 '기독교'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20세기 초에 나온 『예수의 종교와 바울의 신앙』 같은 책들이 이런 계통이다. 둘째 견해는 그 정반대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은혜를 들여왔으니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 이들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과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율법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한다. 로이드 존스는 본서 1장에서 다룬 견해도 이 옛 논쟁의 잔재라고 지적한다. 산상설교는 오늘의 우리와 상관없고 미래 왕국 시대의 유대인에게 해당한다는 해석, 흔히 세대주의라 부르는 견해다. 그는 주님이 17~18절로 이 두 난제에 동시에 답하신다고 본다.

1. 첫 오해: 예수는 율법 선생,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2. 이 오해는 예수와 바울을 갈라놓는다
3. 둘째 오해: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고 은혜만 남겼다
4. '산상설교는 미래 유대인 몫'도 그 잔재다
5. 17~18절이 두 오해를 함께 바로잡는다

> **요한복음 1:17**
> 율법 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구절(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
>
>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 **로마서 6:14**
> “은혜 아래 있다”: 같은 쪽이 근거로 삼는 말씀
>
>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 **마태복음 5:17~18**
> 두 오해에 동시에 답하는 주님의 선언

> [17]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5. 낱말 풀이: 율법, 선지자, '완전하게 하다'

바른 답을 위해 로이드 존스는 용어부터 정의한다.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에서 쓰일 때마다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율법'은 율법 전체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십계명 같은 영원한 도덕 원리인 도덕법,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회생활을 규제한 재판법(민법), 성전 예배와 제사를 다룬 의식법이다.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지겹다며 “왜 음식이며 소금까지 이렇게 세밀한가” 묻는 사람이 많다. 로이드 존스는 그 세부가 모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이루실 일의 모형이자 예언이라고 답한다. 율법에는 어떻게 살라는 명령뿐 아니라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암시와 예언도 들어 있다. 21절 이하에서는 주님이 도덕적 부분만 다루시지만, 여기 일반 진술에서는 율법 전체를 말씀하신다.
'선지자'에게는 두 면이 있다. 선지자는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해 백성을 율법으로 돌이킨 사람(forth-telling, 드러내어 말함)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말한 사람(foretelling, 예언함)이다. '완전하게 하다(fulfil)'는 구약이 시작한 가르침에 무언가를 덧붙여 마무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유행하는 해석이지만 오해다. 참뜻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하여 문자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1.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
2. 율법은 도덕법, 재판법, 의식법을 모두 포함한다
3. 레위기의 세부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언이다
4. 선지자는 율법 해석자이자 메시아 예언자다
5. '완전하게'는 덧붙임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다

> **마태복음 5:17**
> '율법·선지자'와 '완전하게 하다'가 등장하는 본문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21

이후 주님이 율법의 도덕적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곳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6. 첫째 원칙: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18절)

로이드 존스는 18절을 17절보다 먼저 다룬다. 두 절이 헬라어 '가르(왜냐하면)'로 이어져 있어서 18절이 17절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첫째 명제는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이고 완전무결하며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 법은 바뀔 수 없고, 아주 조금도 수정되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은 세상 끝까지라는 뜻이다. 천지는 영원함의 표지다. '일점일획'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글자와 가장 작은 획을 가리키는 말로, 이보다 작은 것은 없다. 그러니 가장 세미한 항목까지 모두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은 '왜냐하면'으로 주의를 끄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덧붙여 자신의 모든 권위로 이 선언에 도장을 찍으신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이 미세한 부분까지 성취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법은 효력을 지닌다.

1. 18절은 '왜냐하면'으로 17절의 이유가 된다
2.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3.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세상 끝까지다
4. 일점일획: 가장 작은 부분까지 다 이루어진다
5. “진실로”는 주님 권위의 도장이다

마태복음 5:18

율법의 영원성과 완전한 성취에 대한 주님의 선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마태복음 5:17

18절이 '왜냐하면'으로 근거를 대 주는 주장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 7. 둘째 원칙: 그리스도는 구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거나 조금이라도 고치러 오지 않으셨다. 성취하고 실현하며 완전히 순종하러 오셨다. 로이드 존스는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인용하신 구약을 살펴보면 결론은 하나라고 말한다. 주님은 구약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믿으셨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어디서나 인용하셨다. 그분에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면서 구약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창조 기사나 아브라함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에 밝은 훌륭한 지도자가 만든 현명한 법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다. 이는 주님이 자신과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선지자들 역시 남보다 인생을 깊이 본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메시지는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성취이시다. 초대교회가 구약과 신약을 한 성경으로 묶은 것도 두 언약이 서로를 비추어야 이해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책의 표기로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는 경고한다. 구약의 권위를 문제 삼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도 문제 삼게 된다. “예수도 그 시대의 제약 안에서 틀릴 수 있었다”고 말하면 그분의 완전한 신성을 깎아내리게 된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1. 주님은 구약 전체를 믿고 인용하셨다
2. 창조·아브라함·모세 율법 부정은 주님 말씀 부정이다
3. 선지자는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다
4. 구약과 신약은 서로를 비추며 함께 읽는다
5. 구약 권위를 흔들면 그리스도의 권위도 흔들린다

폐하러 오지 않고 성취하러 오셨다는 선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35

"성경은 폐하여질 수 없다": 구약에 대한 주님의 태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결론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님에 의하면 구약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전체로, 도덕법(십계명 같은 영원한 도덕 원리), 재판법(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린 법), 의식법(제사와 예배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선지자

율법을 해석해 백성을 돌이키게 한 사람이자, 오실 메시아를 미리 말한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다(성취)
무언가를 덧붙여 끝낸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이 말한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하여 실제로 이룬다는 뜻이다.

일점일획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가장 작은 글자와 가장 작은 획으로, 율법의 가장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를 가리킨다.

모형(예표)
구약의 제사나 의식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그림처럼 보여 준 것이다.

칭의
죄인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성화
의롭다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에서 점점 거룩하게 자라 가는 과정이다.

세대주의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누어, 산상설교를 오늘의 교회가 아니라 미래 왕국 시대의 유대인에게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5:17부터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의의 삶'으로 넘어가며, 주님은 세부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신다.

- 하나님의 법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한 선언이 '예수는 율법 선생일 뿐'이라는 오해와 '율법은 끝났다'는 오해를 함께 바로잡는다.
- 그리스도께서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구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야 한다.
- 구약의 권위를 흔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흔드는 일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